

# 아주대학교의료원소식 8

2005

통권 제 127호 / 발행일 2005. 8.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 목 차 ·

- 2 나의 연구 나의 테마  
NIH에서 찾은 실험의 즐거움
- 3 선인재 칼럼  
니만의 웰빙
- 4 Zoom & Zoom  
대한위암학회 회장, 조용관 교수
- 6 질병정보1  
담석증의 치료와 예방
- 8 특별좌담  
모국 의료문화 경험을 위해 한국 찾은  
꽃 의대생들
-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통증치료 최고의 명의, 김찬 교수
- 12 사랑의 울타리1  
목욕및 머리감기기 서비스
- 13 유명인과 질병  
툼 크루즈의 난독증
- 14 소중한 인연  
절망에서 간절제술까지 바라보는  
상태로 호전돼
- 16 질병정보2  
만성질환자 비강스 여행 시 주의사항
- 18 일본 의대생의 실습기  
현장실습을 마치고
- 19 사랑의 울타리2  
잃어버린 귀(耳)를 찾아서
- 20 잊을 수 없는 환자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마지막 삶을  
보낼 수 있도록
- 21 AMC News
- 26 병동클락 11층 동병동
- 28 우리 병원 아떨습니까  
'목의티' 없는 완벽한 병원이 되기를
- 29 내가 꿈꾸는 의료인  
환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에너지와  
사랑을 나눠
- 30 의료진비 소개  
'현존 최고의 망막촬영기, HRA2
- 31 협력병원 탐방 효자병원
- 32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4 전문클리닉 소식
- 35 진료시간표

## 아주대학교의료원 몽골에서 사랑의 인술 펼쳐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봉사팀이 지난 7월21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를 향해 떠났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기독교회가 주축이 되어 시작된 이번 의료봉사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원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를 단장으로 한 총 19명으로 구성된 이번 의료봉사팀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도시 외곽의 가난한 지역인 중살라, 시골인 바인 초크트 슴 지역주민과 거리의 아이들을 진료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특히, 의료봉사팀은 신장염과 고혈압이 흔하고 치아가 정상적인 사람이 드문 몽골의 특성을 감안하여 치과 위생교육과 당뇨병 및 고혈압 생활요법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몽골은 전반적으로 의료수준이 낮아 일반 국민들이 약이나 의료장비를 이용하기에는 태부족인 실정으로, 이번 의료활동을 통해 대략 1,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찾은 실험의 즐거움

어릴 때부터 나 혼자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장난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그걸 실험이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드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의대 졸업 후에는 주로 환자 진료를 하였고 때문에 실험연구를 제대로 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몇 년간 하다보니 뭔가 다른 좀 더 심도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고, 특히 기초의학적인 실험연구의 기회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과

이쉬움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2003년도에 장기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고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을 최종적으로 택하게 되었다. 선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우선 과 선배 교수님의 소개와 배려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고, 기초적 실험연구를 하기에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연수지가 될 것으로 보였다. 시설면이나 재정적으로 실험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2003년 8월6일 처음으로 방문했던 NIH는 애초의 기대와 예상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 근교에 위치한 NIH 캠퍼스의 크기는 300 에이커(약 37만 평) 정도에 75 개의 건물과 6천여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연구기관이다. 1년 예산이 거의 30조 원에 이르며, 이중 80%가 미국 및 전 세계의 외부기관에 연구비로 지출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미국 및 세계적인 과학연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근무했던 기관은 NIH 산하 심폐혈액 연구소(NHLBI)이고, 그 중에서도 세포신호전달 연구소(Laboratory of Cell Signaling)에서 연구를 하였다. 그 연구소는 호암상을 수상하셨던 사계의 세계적인 석학인 이서구 박사님이 소장으로 계시며, 주 연구분야를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외부 자극이나 생체현상에 대한 세포내의 복잡한 반응과 경로를 규명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소이다. 처음에는 당시 주로 진행 중이던 세포에서 항산화제의 작용기전 및 상호작용에 관한 실험의 일부를 할당 받아서 수행하였는데 주변의 전문 연구원들과 비교할 때 들어간 시간과 노력만큼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아 힘이 들었다. 1년이 다 되어가니까 실험에 대한 개념도 좀 생기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야 나름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 필자가 근무했던 NIH 내의 50번 연구동 전경

생기고 방법론이나 계획도 어느 정도 자력으로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연수의 말기에는 좀 늦긴 했지만 좀 더 새롭고 나은 일을 계획하여 나름대로 진행을 좀 해보았다. 전공분야인 폐에서 주로 작용하는 항산화효소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새로운 발견을 몇 가지 할 수가 있었다. 그 발견으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수이지만 나의 힘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즐거웠고 실험에 흥미도 더 붙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실험에 더 열중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말에도 실험실에서 주로 보냈다. 그 바람에 필라델피아 허쉬 초콜릿 공장과 아나폴리스 해변가 바다가재요리 먹으러 가기로 했던 약속을 못 지켜 애들에게 좀 미안하다(바다가재는 집근처 레스토랑에서 대신 사먹었다).

하고자 하는 실험을 다 마치고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얻어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실험연구의 많은 기초적 자료와 연구의 희망을 가지고 온 것 만으로도 큰 수확이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새벽 3시, 실험실에 나가서 세포배양기 내에 첫 클로닝 실험을 했던 세균이 성공적으로 자란 것을 보고 느꼈던 감동과 희열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람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호흡기내과 선배 동료들 그리고 대학과 병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진료와 연구에 있어서의 성과로서 그에 보답하는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박 광 주 교수 / 호흡기내과학교실



## 나만의 웰빙(Well-being)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웰빙(참살이) 열풍이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과 몸매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유기농에 웰빙식품을 먹으면서 가령 명품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자신의 눈에) 명품을 구입함에 아낌없이 투자하나, 낭비는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나와 비교하면 좀 기분이 별로이다. 몸매관리는 물론 운동은 작심삼일이고, 그나마 엘리베이터 안타기라도 할라치면 4층 계단도 숨이 차, 엘리베이터 앞으로 간다. 명품은 그 가치를 모르니 부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알뜰한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지내온 것 같다.

무슨 이유로 사나? 내 의지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지만 무슨 이유로 사는 지 생각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다. 언젠가 무대에 서는 날이 올 것처럼 부지런히 연습하며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 젊은 주인공들을 보면 싱싱하고 활기차 시샘도 아닌데 괜히 억울한 생각만 든다. 58년 개띠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그 웃음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끼 세대」의 의미는 좀 알 것 같다. 그래도 아직은 남아 있는 포부와 중요한 미션이 있기는 한데 무엇일까? 매일 출근해 온 종일 바쁘게 지내기는 하는데 저녁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다. 마음만 앞서고 해결된 일 없이 또 하루가 시들어 퇴근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식구가 모여 번잡하게 살아왔다. 이제는 단출해지긴 했는데 집안 일은 점점 하기 싫다. 아직 아파트에 살아본 적 없이 구식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이사를 가야 하나보다 생각이 든다. 대청소는 케녕 방청소도 싫다. 그래도 먹는 것을 즐기는 식구들 덕에 요리까지는 좋은데 설거지는 싫다.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름답게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요사이 남편은 집안일들이 싫어지는 나를 변절자라 느끼는 것 같다. 그나마 조그만 내 실험실 생활은 결과 없는 데이터로 연구결과 보고서 쓰는 일, 언제나 달랑달랑한 연구비 걱정으로 괴롭지만 그래도 학생들 손에 들고 들어오는 실험결과를 보며 나누는 작은 즐거움이 유일한 낙인 것 같다. 그래도 애타는 선생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의시간은 더욱 싫다. 즐겁고 발전적인 것도 있지만 해결책 없는 얘기로 길게 늘어지고 다른 의견으로 합의가 안 되는 쟁점이 있으면 참 곤혹스럽다. 설득력 있는 언변을 타고나던가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았을텐데 ... 좋은 것에 비해 싫은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른 채 바쁘게만 지내온 것이 후회스럽다. 아주대학교 동료들을 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느낀다. 참 일도 잘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닥쳐도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지내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샘도 난다. 나도 깨닫는다. 남에게 못하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맘에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미룬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양 식구들 고생시키고 미련하게 살았던 것 같다. 나의 부족함을 남의 탓으로 돌려 위로삼고 살아 온 것을 결국 내 탓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정열과 꺾이지 않은 자존심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고마움을 갖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본다.

이제 다른 이에게서 상처 받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있음을 대견해 하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이들에 대한 안쓰럽고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고달프고 힘든 삶을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말로 인해 이전처럼 상처를 받지 않을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더욱 안심이 되는 것은 첫 인상으로 대개는 상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선입견이 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안전 장치의 역할을 해 준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분에 넘치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잃어버린 젊음을 대신 채워가고 있다. 모든 것에 고마움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려 한다.



백 은 주 주임교수 / 생리학교실





# 대한위암학회 회장, 외과 조용관 주임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조용관 주임교수가 지난 4월 대한위암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개원 이후 위암절제술을 3,000례 이상 시행했으며, 위암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용관 주임교수에게 위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먼저 대한위암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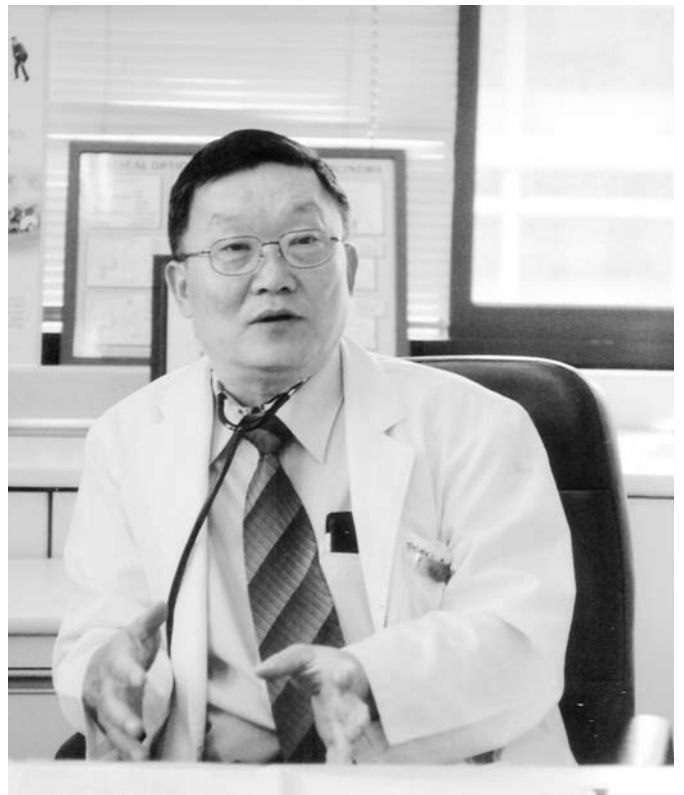
이번에 제가 대한위암학회의 회장이 된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회장이란 것이 저 개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아주대학교병원이 그동안 위암의 진단, 치료, 연구에 있어서 국내에서 선도적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서울의 몇 개 대형병원들에 비하여 환자 수는 적지만, 소위 질적인 면에서는 앞서 있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아주대학교병원 외과의 능력 있는 젊은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대한위암학회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 위암을 보는 의사들의 모임으로서, 1988년 「한국위암연구회」라는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국내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진복 교수를 중심으로 1993년 「대한위암학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매 년 학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위암관련 모임을 후원합니다. 국제적으로는 1996년 세계보건기구와 WHO-CC for Gastric Cancer, 세계적 암공식기구와 UICC workshop for Gastric Cancer를 개최했으며, 제3차 국제위암학회인 IGCC를 국내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회원은 약 600여 명의 위암관련 의사들로 국제적으로는 역사가 45년 되는 일본위암학회 다음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999~2001년 국내 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위암이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암이 다른 암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내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인한 것이고, 더구나 암으로 인한 사망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걱정입니다. 위암은 국내 암 발생의 20.2%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암 환자 10명 중 1명은 위암



환자입니다.

위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 특히 음식물에 의한 문제가 가장 크므로 우리 의 식생활 습관으로부터 원인을 찾아본다면, 불에 태우거나 훈제, 가공된 육류 등에는 발암물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산염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 외 짜거나 매운 음식, 술, 커피 등 기호식품은 그 자체가 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오래 먹으면 위 점막에 손상을 주어 위가 암을 일으키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담배와 위암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보면 국내의 흡연연구가 많은 것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 내에 서식하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도 위암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 위암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의학용어로 위암의 전암병변이라는 것이 있는 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만성 위축성위염, 장이형성증과 위용종, 예전의 위수술 등이 있습니다. 전암 병변으로 진단받으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위암 발생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 음식이 함유하고 있는 각종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E, A의 항암효과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암은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꼭 정밀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초기 위암은 위염이나 위궤양과 구분이 힘든 애매한 증상이 많아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특히 자극성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주 체하거나, 불편해 봐서 이런 증상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한 소화제나 제산제를 쉽게 구하여 먹던 습관 때문에 초기에 위암을 진단하는 데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암이 심해지면, 통증, 피를 토하거나 혈변이 있고, 더 심해지면 구토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결국에는 체중감소, 복수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 때는 치료도 힘들 뿐 아니라 치료를 해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을 보고 병원에 오는 것보다 매년 혹은 늦어도 2년마다 주기적으로 내시경검사를 한다면 우리가 위암의 자라는 속도를 알기 때문에 위암을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암에 대한 초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초기에 발견된 위암환자는 재발이 없이 오래 삽니다. 또, 치료도 비교적 쉽습니다. 초기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만 치료를 하거나, 배를 아주 작게 찢고 하는 복강경 수술이나 축소수술 등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런 치료는 수술 후에 불편도 적습니다. 더구나 항암제 주사나 방사선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나 우리 치료자들에게는 단지 2년 이내에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로써 얻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이익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

현재 우리 병원을 포함한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위암치료환자의 절반 이상이 조기위암입니다. 즉, 재발 없이 오래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우리의 관심은 치료 후에 편하게 생활을 하는 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암이 안 생기게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벌써 소화기내과학회의 선생님들과 합동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벌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곳보다 먼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수술이외에도 내시경으로 하는 치료,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 축소수술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동안 발전된 우리나라의 위암의 연구·진단·치료를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하여 다시 한번 국제위암학회의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 미 정 / 홍보팀 〉



# 담석증의 치료와 예방

## 담도에 돌이 생긴 병이 담석증

담석증이란 담도에 돌이 생긴 병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약 10%가 담석을 가지고 있다. 담도란 간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의 일종인 담즙을 장으로 내려 보내는 길로써,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하는 담관과 담도의 중간에 위치하여 담즙의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담낭, 즉 쓸개로 나뉜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평상시 저장하는 풍선 같은 주머니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저장하고 있던 담즙을 짜서 담도를 통해 장으로 내려 보내게 되며, 장으로 내려간 담즙이 음식물을 분해하여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된다.

담석은 생긴 위치에 따라서 담도에 생긴 돌을 담관결석이라고 하고, 담낭에 생긴 돌을 담낭결석이라고 한다. 통상 일반인들이 이러한 담석과 콩팥이나 소변줄기에 생긴 돌을 혼동하는 예가 종종 있다.

흔히들 담석증이 생기면 맥주나 물을 많이 먹어 소변으로 내려 보낸다고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소변으로 흘러 내려보낼 수 있는 돌은 콩팥이나 소변줄기에 생긴 돌로 비뇨기계에 생긴 돌이고, 담석은 담도에 생긴 돌로 생기는 위치가 차이가 있어 소변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돌이 아니다.



## 담석증은 비만한 사람과 다산한 중년여성에게 잘 생겨

담석의 원인은 체질과 관계가 많으며, 비만한 사람과 여자에 잘 생기고, 특히 자녀를 많이 낳은 중년 여성에서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석증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이 모르고 지내는 수가 많으며, 일부에서 우측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는 수가 있다. 담석에 의한 통증은 위나 장이 나쁠 때 오는 통증과는 달리 같은 우상복부의 한 군데 부위가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특징적이며, 때로는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담관에 생긴 담석은 황달을 동반하는 수도 있으며, 담도나 쓸개에 염증이 동반되면 열이 나게 되며, 이 때는 빨리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초음파 검사로 손쉽게 진단 가능

담석증의 진단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초음파 검사로 대부분이 고통 없이 손쉽게 진단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담도내시경을 시행하여 진단한다.

## 담관결석 치료는 내시경으로 하나 담낭결석은 외과적 수술해야

담석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초음파검사



▲ 담낭 결석의 모습



및 피검사만 시행하면서 추적관찰만을 시행한다.

이때 담석용해제를 포함한 간장약을 먹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담석은 서구의 담석과는 달리 먹는 약으로는 잘 녹지 않는 성분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 복통, 황달, 고열 등 증상이 있는 담석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그 치료법은 담석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르다.

담낭, 즉 쓸개에 생긴 담석은 담낭을 잘라내 주는 외과적 수술이 원칙이다. 흔히 쓸개를 잘라야 된다고 하면 쓸개 빠진 사람이 된다고 하며 꺼리는 사람이 있으나, 쓸개는 우리 몸의 맹장과 같이 잘라줘도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없다.

요즈음은 담낭을 수술하는 방법이 매우 발달되어 우리 몸에 큰 상처를 내지 않고 복부에 1cm가량만 복부에 구멍을 내어 맹장수술을 하는 만큼 손쉽게 담낭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담관에 생긴 담석은 외과적인 수술 없이 입을 통하여 내시경적으로 손쉽게 꺼내 줄 수 있다. 그러나 간 안에 생긴 간내담석의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 피부에 구멍을 내어 간 안쪽으로 길을 만들어 이 길을 통하여 내시경적으로 꺼내 주거나,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다.

**균형 있는 식사와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면 예방에 도움돼**

담석은 체질적으로 잘 생기는 사람에서 생기므로 근본적으로 예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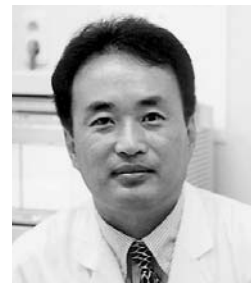
는 방법은 없으며, 식이요법으로는 비만하지 않도록 규칙적이고 균형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동물성 지방질 및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생선류, 콩류 등의 식물성 지방산이 많은 음식이 좋고, 식용유는 올리브유, 해바라기 기름, 옥수수 기름 등의 식물성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살코기 등의 단백질은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오래된 담석이 암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상식을 버려야**

담석이 오래되면 담도 또는 담낭에 암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통증이 있는 담낭결석을 가진 환자 만명 중 2명 정도가 담낭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통계로 보아 크게 걱정할 만한 정도는 아니며 증상이 없는 담석증 환자는 정기적인 검사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염약 복용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담석 의심**

담석은 우측 상복부 또는 가운데 상복부에 30분 내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통증이 전형적인 증상이지만, 담석을 가진 사람의 60% 내지 80%에서는 증상이 전혀 없으며,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과식 또는 장기간 금식 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가벼운 소화불량 또는 식후 속쓰림 등의 위염 증상과 유사한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위가 안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위염약만 먹고 위내시경 검사만 시행하고 있다가 담석의 진단을 놓치는 수가 많이 있으므로, 위염 증상이 있어 위염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담석을 한번쯤 염두해 복부 초음파검사나 간기능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김진홍 교수 / 소화기내과학교실





# 모국 의료문화 경험을 위해 한국 찾은 美 의대생들

아주대 의대와 스토니브룩 의대가 3년 전부터 실시해온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난 7월4일 스토니브룩 의대생 3명이 아주대 의대에 도착했다. 그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 양국간 학사제도 및 의사면허시험 등의 차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을 들어보았다.



##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된 동기는

Lee, Jung Clare(내분비내과 실습) : 아주대 의대와 스토니브룩 의대 사이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좀 더 많은 임상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의료문화와 병원문화도 알아보고 싶었다.

Won, Gena(응급의학과 실습) : 작년에 아주대 의대를 다녀간 스토니브룩 의대생 2명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듣고 궁금했다.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는 처음 오는 것이라 친지들도 만나고 싶었다.

Lee, Dara(중앙혈액내과 실습) : 나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은 두 번째 방문인데 많은 것들이 새롭고 재미있다.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여름방학에 과테말라와 같은 저개발국가로 봉사를 간다. 단순한 임상실습이라 생각하는 경우 언어의 장벽 때문에 교환학생을 꺼려하지만,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 아주대 의대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Lee, Jung Clare : 아주대 의대생들은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한국 의대생들이 어려운 의학용어(한국말 의학용어를 기대했는데 모두 영문을 사용하고 있었다)를 자유롭게 구사하는데 놀랐고, 미국과 같은 교재를 사

용하고 영문 논문을 탐독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놀랐다. 의사들이 서로 팀을 이뤄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자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고 느껴졌다.

Lee, Dara : 한국은 의사와 환자간의 위계질서 혹은 권위의식이 뚜렷하고, 선후배 사이나 레지던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미국은 의대생들이 선망하는 의국장(Chief) 정도가 약간 다를 수 있을까 나머지는 친구 사이와 같다.

Won, Gena : 미국도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서슴치 않는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의 교수들은 학습 및 기타 학생들의 상담을 위해 공식적으로 정해 놓은 시간 「Office hour」를 철저히 지키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질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 주며, 학생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을 「공부하는 학생」 또는 「뛰어난 학생」으로 인정해 준다.

## 아주대 의대는 학생 개인별 담임교수제도가 있다. 스토니브룩 의대의 학사제도(담임반 제도 등)와 의사면허시험 제도가 궁금한데.

Lee, Dara : 학생 20 명당 1 명플로 교수가 담임하고 있다. 한 학년에 100여 명이므로 5 명의 담임교수가 있는 셈이다.

Lee, Jung Clare : 실습은 본과 3~4학년에 들어가게 된다. 1~2학년 때에도 주 1회 실습과정이 있는데, 주로 환자에 대한 문진과 검진을 실습한다. 스토니브룩 의대에서는 최근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학생들을 조기에 임상에 노출시키도록 하는 추세이다.

Won, Gena : 의사면허는 USMLE(국가고시)를 통해 취득한다. USMLE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2학년 말에 기초의학에 관한 필기시험, 4학년 말에 임상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레지던트 시작 전에 CPX(컴퓨터를 통한 모의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시험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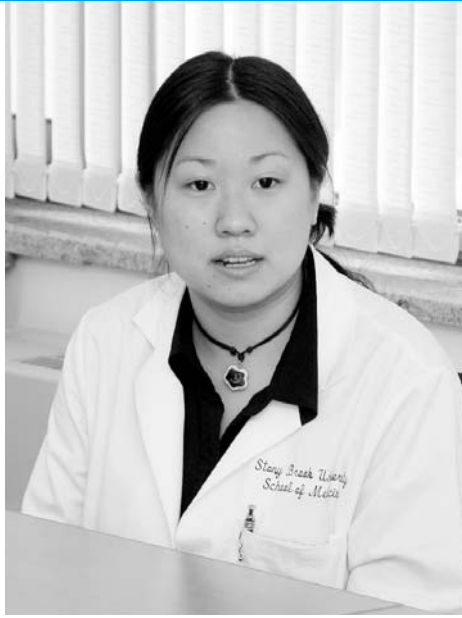
##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Won, Gena : 응급실에서 다양하고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어 좋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미국의 응급실은 작은 병실이





▲ Lee, Dara



▲ Won, Gena



▲ Lee, Jung Clare

여러 개 있는 형태로 한 방에 2~3명만 들어가는 구조이고, 총기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경찰의 경비가 삼엄해 환자 가족이더라도 시간당 15분 정도만 면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곳 응급실은 개방된 공간이고 경비도 삼엄하지 않아 보호자나 일반인이 수시로 접근할 수 있어 처음에는 무척 놀랐다. 대기실에 보호자들이 몰려 있는 모습도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응급실의 대기시간도 미국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미국의 응급실은 저소득층이 1차 의료기관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일반적이다.

Lee, Dara : 종양혈액내과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오전에는 병동 라운딩, 오후에는 줄기세포(stem cell)에 관한 공부를 주로 한다.

Lee, Jung Clare : 내분비대사내과에서 이관우 교수님께 실습을 받고 있다. 오전에는 병동 라운딩을 하고 내과 의대 5학년 학생들의 실습일정에 맞춰 내과를 라운딩을 하거나 1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 오후에는 경우에 따라 당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의대생과 함께 과별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기도 하고 레지던트와 병동 라운딩을 한다. 처음 외래에 참여했을 때 3시간 동안 17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미국은 한 환자당 진료시간도 길지만 10명의 환자를 넘지 않는다. 미국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 곳에서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어 만족한다.

Lee, Jung Clare : 체계적인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알고 싶는데 교환 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Lee, Dara : 본교에서 국제여름학교가 마침 운영 중이어서 수요일마다 한국전통문화(태권도, 도자기 굽기, 서예, 사물놀이 등)를 체험하고 있다. 특히, Gena와 나는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본교에서 수강하는 한국어 강의가 도움이 되고 있다.

Won, Gena : 우리를 위해 의대에서 UNESCO에서 지정한 화성을 포함한 수원관광을 배려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 신미정 / 홍보팀 〉

### 아주대 의대에 하고 싶은 말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Lee, Dara :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주변의 음식점이나 슈퍼, 관광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생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있다면 훨씬 편리할 것 같다. 학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아야 하는 점이 불편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통증치료 최고 명의, 마취통증의학과 김찬 교수

진료를 받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을 다니면서 정작 주치의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다. 어떤 분야에 전문가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진료철학이 무엇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등 주치의에 대해 궁금한 게 사실이다. 확대경을 통해 그의 삶을 보면서, 아주대학교병원 의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는 마취통증의학과 김 찬 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아**주대학교병원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통증 치료에 있어서 국내 최고라고 자타가 인정한다. 세계 최초로 삼차 신경통 환자에서 알코올 신경차단술 1,000례 돌파, 국내 최초로 다한증 환자에서 교감신경차단술 1,100례 성공, 국내 최초로 중재적 요법에 의한 신경차단술 시행, 2004년 동아일보가 조사한 전국 「통증치료」 명의 1위 등 화려한 이력을 볼 때 모두가 인정하는 통증치료 최고의 명이라는데 손색이 없다.

김찬 교수는 이렇듯 유명한 의사이건만 밖으로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는 성품 때문인지 「통증치료를 잘 하는 의사」라는 것 이외에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사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통증치료를 잘 하는 의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990 ~ 1991년 통증치료로 유명한 일본 도쿄 관동체신병원 신경통증클리닉에서 연수한 김찬 교수가 귀국 후 국내 최초로 중재적 요법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내 통증치료는 말기 암 혹은 수술 후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에 진통제를 투여하는 보



###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을 수술실 밖으로 불러낸 통증치료의

조요법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가 국내에 들어와 통증치료를 시작하고 보급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국내 통증치료의 수준은 일본을 능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 연수 당시 일본의 의사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방법을 보고만 왔다 가 국내에 와서 실제로 환자에게 시행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C-arm(이동식 엑스레이 투과장비)에서 나오는 엑스선과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면서(?) 그만둘까』라는 고민





개척자, 김찬 교수

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고 회고한다. 「집안에 없는 대머리가 생기겠다」며 머리술이 빠진 머리와 C-arm에 군데군데 탄 손등과 손톱, 굳은살 박힌 손가락을 보여주는 김 교수를 보면 국내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기까지 지난 시간 그가 쌓아온 노력과 역경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 「그 때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해 본다. 김찬 교수는 통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만두지 않기를 잘했다. 후회 없는 선택이다」고 생각한다. 김찬 교수에게는 유독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라고 인사하는 환자들이 많다. 언젠가는 「왜 이렇게 늙었느냐」며 우시는 할머니 환자도 있었다. 때론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김찬 교수에 대한 고마움과

이런 의사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았으면 하는 환자들의 애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일 것이다.

환자에 대한 김찬 교수의 애정은 모자람이 없다. 진료철학을 묻는 질문에 「환자 마음을 편하게 하자」라고 김찬 교수는 말한다. 일본 연수 당시 국내 병원의 불친절 때문에 이국 땅 일본에까지 와서 간암 수술을 받은 70세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병원의 불친절은 환자들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우려한다. 김찬 교수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친절하고, 애

정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김찬 교수가 가장 애착을 갖고 치료하는 질병이 삼차신경통이다. 삼차신경통은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통증이 심한데, 1~2분의 알코올 차단술만으로 이러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므로 보람도 크고, 환자들도 가장 고마워한다고 한다. 삼차신경통의 통증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얼굴에 스치기만 해도 깜짝 놀랄 정도의 통증이 칼로 찌르는 듯 심하다.

김찬 교수는 유명하다. 의사들 사이에서 환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들이 김찬 교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러한 유명세는 대부분 환자들의 입소문으로 만들어졌다. 금방 통증으로 죽을 것 같더니 몇 분의 치료로 며칠에서 길게는 수년간 고통 받던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니 한 번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찬 교수를 적극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찬 교수의 제자는 전국 각지에 있다. 일본 연수 후 국내에서 처음 통증치료를 시작할 때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볼 때가 없어 무척 고생했던 김찬 교수는 통증치료를 배우려는 후배 의사들에게 자신의 의술을 전수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제껏 연수받은 의사 수만 해도 약 400 명.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수술실」이 아닌 「신경통증클리닉」이란 독립된 별도의 분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주고 있다.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후학을 양성하는 선생님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김찬 교수의 앞으로의 바람은 국내 의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전 세계 의사들이 통증치료를 위해 연수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 국내의 통증치료 분야가 선진 외국에 비해 크게 앞서 있는 만큼 우리의 의료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김찬 교수는 말한다.

평생을 통증환자의 치료와 후배 양성에 전념했던 김찬 교수. 통증치료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까지 쏟아 부었던 열정과 땀방울, 환자를 사랑하고, 제자를 아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김찬 교수의 의술과 사랑이 통증으로 고통 받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우 효 정 / 홍보팀 〉





## 거동 불편한 환자에게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 펼쳐



아주대학교병원 간호부가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기존의 간호서비스 외에 거동이 불편한 무의식 환자, 장애환자, 기력이 쇠한 고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 활동을 펼쳐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팀 구성은 9층 동, 서병동 수간호사, 간호사, 보조원 2명, (주)케이택 배육남 실장 등으로 2명씩 교대로 매주 2회(화, 금요일) 실시해 왔다. 환자가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면 환자의 병실을 방문하여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 활동을 펼친다. 이제껏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 혜택을 받은 환자만 해도 약 3,113명(목욕 173명, 머리감기기 2,940명). 이러한 활동이 입원환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매달 신청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현숙 수간호사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목욕이나 머리 감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직접 표현은 안하지만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을 보면서 평소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몇몇이 모여 시작하게 됐다』고 하면서 『거동이 힘든 성인 환자의 몸을 닦아 주거나 머리를 감기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때론 귀찮기도 하지만 깨끗이 목욕 후 편안해 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를 받은 유응열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직접 씻지도 못하고, 누군가 씻겨 줄 수 있는 형편도 못되어 불편하고, 답답하던 차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됐다』고 하면서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를 받은 후 얼마나 시원하던지, 많이 힘들었을텐데 삶은 내색 한번 안하고 오히려 내가 불편해 할까 배려하여 주는 서비스팀에게 미안하면서도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부는 목욕 및 머리 감기기 서비스 활동에 관해 환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2월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79.6%(43명/54명), 보통 20.4%(11명/54명), 불만족 0%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톰 크루즈와 난독증

**최** 근 미국의 한 영화전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톰 크루즈가 미국에서 최고의 관객동원력을 가진 배우 1위로 선정됐다. 탐건, 레인맨, 미션 임파서블, 마이너리티 리포트 등 수많은 영화를 통해 극찬을 받고 있는 톰 크루즈는 「난독증」을 극복해 낸 배우로도 유명하다. 7살 때 난독증 판정을 받은 톰 크루즈는 스스로 글을 읽을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이 대본을 읽어주고 이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영화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듣게 된다. 읽기 쓰기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동들에게는 매우 큰 상처가 될 뿐 아니라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아이의 어려움을 발견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난독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훈련하는 방법과 책 이외의 비디오 테이프 등 보조수단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난독증을 가진 아동들이 학업적 문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좌절감 등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상담 치료도 때로는 필요하다. 난독증의 절반 이상에서 주의력결핍 과

난독증은 말 그대로 학습장애 중 하나인 「읽기 장애」를 일컫는다. 정상적 지능을 가진 아동이 시각, 청각 등의 감각기능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해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난독증 즉, 읽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령기 아동의 대략 2~8%로 추정되고 있다.

잉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된다.

어떻게 잘 보이고 지능에 문제가 없는데 읽을 수가 없는 것일까? 읽기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단어 인식, 읽기 유창성, 내용 이해 라는 다소 복잡한 과정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엄마」라고 했을 때 이는 「ㅇ, ㅏ, ㅁ, ㅁ, ㅏ」로 구성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분해해서 다시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읽기 능력의 바탕이 된다. 또한, 낱말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시각적 분석이 필요하고 과거의 시각적 기억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ㅏ, ㅑ 를 헷갈리는 것, ㄴ, ㄷ 을 비슷하게 보고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머리 속의 기억을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시각적 기억들을 회상해서 결합시키는 것. 이런 과정들이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일어나야 하는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 윤 미 교수 / 정신과학교실

본의 아니게 난독증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은 학습 지진이라는 말을



## 절망에서 간절제술까지 바라보는 상태로 호전돼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발견부터 치료 또는 재활까지의 과정을 환자에게 직접 들어보고 해당 질환의 증상, 진단방법, 치료, 예방법 등을 알아보는 「소중한 인연」. 네 번째로 5년 전 간동맥 화학 색전술(TACE)을 받고 치료 중인 권영찬 환자와 주치의인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를 진료실 밖에서 만났다.

###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간암이라는 것은 언제 알게 되셨는지요?

2000년 1월경 무증 치료 받기 위해 동네 의원을 찾았습니다. 무증약의 독성 때문에 혈액검사(간기능검사)를 했고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복부초음파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결과 간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 주치의를 조성원 교수님으로 선택하신 사연이 있으신지요?

검사를 했던 오산시의 가정의원에서 조성원 교수님 앞으로 진료의뢰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성원 교수님을 간질환의 권위자라고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2000년 1월26일 처음 진료를 받던 날, 실력과 연륜을 갖추신 교수님이 작지만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저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든든한 마음이 들면서 신뢰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간암의 진단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확진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간암이 확실시 됐고, 왼쪽 부신에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환자를 입원하도록 하고 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및 대장경, 간조직검사를 통한 정밀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암은 간의 여러 군데에 있었지만, 다행히 크지는 않았고 부신 이외 다른 곳에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암으로 진단된 후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정밀검사 결과를 보신 조 교수님은 허벅지의 동맥에 가는 관을 넣어 간암 세포만을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간동맥 화학 색전술(TACE)\*\* 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2월16일 1시간여에 걸쳐 그 시술을 받았습니다. 1개월 후 외래에서 수술이 잘되어 경과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후 2~3개월마다 복부 전산화단층촬영과 간종양지표검사를 하여 계속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근까지 총 8차례의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반복하는 목적은 암의 재발여부를 알아보고 암이 있는 부위에 약물을 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 경우에는 처음 2년간은 1년에 두차례, 3년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는 종양태아 단백질의 일종인 Alpha-Fetoprotein(AFP)이라고 하는 혈청단백이 간암의 경우 약 60% 환자에서 다른 몇가지 질환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다. 어떤 경우는 이 혈액검사만으로도 진단이 확실한 경우가 있다.

\*\* 간동맥 화학 색전술(TACE)은 간경화증으로 절제가 쉽지 않고 또 암 덩어리가 간에 산재한 경우에 암세포 혈관을 차단하여 아사(餓死)시키는 방법으로 간암의 치료에 매우 유효하다. 이 방법은 정상 간에는 큰 지장 없이 간암만을 괴사시킬 수 있으며 이 술식 후에 발열, 구토, 복통, 복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

차부터는 1년에 한차례씩 받았습니니다. 지금까지 암 부위가 커지거나 다른 부위로 의 전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오랜 시술 과정에서 완치에 대한 불안함이나 재발 가능성 등 두려움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할 즈음에는 제 증세 정도면 2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니다. 당연히 저와 가족은 절망에 빠졌지만, 곧 「이미 닦친 일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을 했습니니다. 「암을 친구로 생각하자」는 어떤 책의 문구처럼 「간암은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지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마음먹고 조금씩 하지 않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니다.

### 마지막으로 조성원 교수님,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치의로서 환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암은 조기 발견해 수술해도 평균 5년 생존율이 60~7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료 후 재발이 흔하므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권영찬 환자분처럼 간에 암이 있고 다른 장기에 전이된 상태에서 간암 발견 후 5년이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30~50% 정도만이 암이 완전히 제거되고 가장자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권영찬 환자분은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좀더 지켜본 후 절제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이됐던 부신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니다만 간암 부위와 전이된 부신을 깨끗하게 절제하면 훨씬 안심할 수 있으니 환자와 가족에게는 희망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간은 재생력이 뛰어나, 전체의 70%가 망가져도 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오른쪽 상복부 불쾌감, 체중감소 및 식욕부진 등의 증상도 평상시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간 질환의 주범인 B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감염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염 보유자나 간암 발병이 우려되는 경우 1년에 두 번 정도는 혈청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 신 미 정 / 홍보팀 〉

## 간암이란?

간암은 현재 국내에서 발생률, 사망률 모두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암과는 달리 초기에 발견해 수술해도 평균 5년 생존율이 60~70%로 낮다. 간경화가 심해 수술 뒤에도 간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병의 원인만 철저히 차단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70%는 만성 B형 간염, 10%는 만성 C형 간염, 10%는 지나친 음주에 따른 알코올성 만성 간질환, 10%는 비만에 따른 지방간염 등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를 만들면 막을 수 있으나, C형 간염 예방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간경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초기에 간암을 발견할 때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정기검진이 그래서 중요하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40세 이후 매년 복부 초음파나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일종의 혈액검사)를 받도록 한다. 특히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나 간염환자, 만성 간질환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주치의 조성원 교수는...

조성원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간질환. 현재 소화기내과 주임교수 및 아주대병원 제1진료부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1987년부터 2년간 영국 런던 소재 Royal Free Hospital에서 간 연구원으로 연수한 바 있다.

국내 최고의 간 전문의 중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조성원 교수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서 실시한 전국 대학병원 간질환 분야 베스트 닥터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주대병원 말기 간암클리닉을 개설, 간암 환자의 수술 및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외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대한간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2004~2005년, 2006년판 「마르퀴즈 후즈 후(Who's Who)」, 의학 및 보건 분야 업적자로 연이어 등재됐다. 또한, 2005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명정보기관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에 등재되었다. 2005년 7월부터 KBS 의료 자문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만성질환자 바캉스 여행 시 주의사항

**만** 성질환자들은 여름 바캉스 여행을 떠날 때 여행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만성질환자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황홀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 또 여행 시 주의사항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출발해야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 당뇨병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을 적절히 하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는 일정치 않은 식사, 낯설은 음식에 대한 적응면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행지에서는 평소 잘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기름지지 않고 짜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둘째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주의사항이다. 대개 펜 형태의 인슐린 상온에서 30일간 효능을 나타내므로 보관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자동차 뒷 트렁크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렁크 안의 온도가 아주 높게 올라가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저혈당에 대한 대비이다. 여행지에서의 설레임과 평소보다 운동량의 증가 혹은 감소로 혈당의 변화가 예상보다 심할 수 있으므로 혈당 측정을 반드시 하여 저혈당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넷째는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 장시간 항공 여행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하며, 6시간 이상의 시간대를 지날 때는 음식 섭취와 신체활동에 따라 인슐린 요구량을 일시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동쪽으로 여행시는 아침 인슐린 용량을 감소할 필요가 있으며, 서쪽으로 여행할 때는 하루가 길어지므로 인슐린 용량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당뇨병 환자는 쉽게 피로해지므로 편안한 신발, 발 관리를 위한 파우더나 로션을 준비해 오래 돌아다니기에 편안하도록 한다. 또한 자신이 당뇨병 환자임을 알리는 표지 카드나 메달, 현재의 진찰기록 및 치료상태를 알려주는 진단서를 준비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다.



## 심장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항공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출발 전에 의사와 여행일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폐질환이 있는 경우 50~100미터 정도를 걷거나 12계단을 올라간 후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여행을 할 수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기내 환경은 산소의 분압이 지표면보다 낮다는 것이다. 항공기 객실 내부의 공기를 약 2,000 미터 고도의 공기와 비슷하도록 유지하도록 공조시스템이 작동하게 되어 산소의 분압은 지표면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가 안 좋은 분들은 숨이 차거나 흉통이 생길 수 있다.

여행 중에는 자신이 심장질환 또는 폐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걸이나 표식자를 착용하도록 하며, 최근의 심전도 검사 소견이나 병력과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하여 적은 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약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소지하며, 절대로 약을 여행용 큰 가방 안이나 화물칸에 두지 말아야 한다. 비행 중 탈수가 되지 않도록 물이나 주스를 적절히 섭취하며, 소변량을 늘려서 탈수를 유발하는 커피나 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짠 음식





식을 피하여 몸이 붓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다리의 혈전증의 위험도 높으므로 자주 다리를 펴 주는 운동을 하고 일어나서 다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도 쪽 좌석을 미리 배정받는 것이 좋다.

### 폐질환

폐질환 환자는 복용 중인 약물을 충분히 가져가야 하며, 약물은 손가방에 갖고 다니며 꺼내기 쉬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항공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호흡기내과 의사나 담당 주치의에게 비행 중 산소흡입이 필요한 지 평가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항공 여행 시 보통 대기보다 약간 저산소 상태가 되며, 정상인은 별 문제가 없지만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에서는 병의 중증도에 따라 경미한 혹은 심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항공여행 특히 장거리 항공여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항공여행은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의 전염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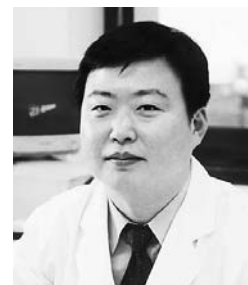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여 가능성이 적다는 판정을 받으면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초진료 환자에서 치료시작 후 2주 경과하면 전염성은 거의 없어진다).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는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고 사망률이 증가되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이다. 4월에서 9월 중 남반구 즉, 오스트레일리아주나 남미를 여행하고자 하는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작년 가을이나 겨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여행에 앞서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담당 의사나 종합병원의 여행자클리닉에 문의하여야 한다.

### 임산부

임산부들은 분만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항공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항공여행은 건강한 임산부나 태아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 임신 중 항공 여행에 가장 안전한 시기는 임신 18주에서 24주이며, 국내 항공 여행의 경우 임신 36주까지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32주 이후에는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있다. 많은 항공사들은 분만 예정일이 4주 이내인 임산부에게 타도 괜찮다는 의사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출산 7일 이내에 신생아와 항공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신생아를 위해 좋다.

기타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저하되는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환자는 또 맨 몸으로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김 광 민 주임교수 / 가정의학과교실



## 현장실습(Clinical Clerkship)을 마치고

일본 교린대학교 6학년 이정훈 학생이 아주대학교병원 현장실습을 통해 느낀 점과 교린대학교와의 차이에 대해 글을 남겼다.

먼저 이번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님을 비롯해 순환기내과 교수님, 전공의, 그 외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본 교린대학교의 의학부 커리큘럼은 1학년은 기초과목(생물, 화학, 물리 등), 2학년은 기초 의학(해부, 조직, 생리, 생체화학, 약리 등), 3학년은 내과·외과, 4학년은 마이너과(산부인과, 소아과 등)를 공부한다. B S L(Bed Side Learning)은 5학년 때 1년간 실시하고, C P C(Clinico-Pathologic Conference)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한다. 2월에 모든 과를 통한 기말고사가 1회(6시간 200분) 실시된다. 6학년 수업은 모든 과의 총 정리로 국가시험을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이 기간 중에 지역 의료실습(1주간)과 현장실습(Clinical Clerkship, 1개월에 2회)이 있다. 11월 말에 3일 동간의 졸업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다음 해 2월 중순에 국가시험을 3일간 실시한다. B S L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리포트의 제출(프레젠테이션)과 구두시험이 있고, 과에 따라서 O S C 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나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이번에 내가 아주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은 임상실습의 일환이었다.

3주 동안 실습을 통해 느낀 것 중에서 부러웠던 것은 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매주 각과 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게다가 2주에 한 번은 전체 프레젠테이션, 또는 C P C도 있어 매우 기회가 많아 학생들이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발표자가 아직 경험이 없는 5학년생들이었지만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만 있어도 공부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B S L은 순환기내과 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되지만 부과된 과제가 많아 과제만으로 무척 바빴다. 과제 중 「실제로 환자의 심전도를 촬영 한다」 등의 실제적인 실습도 있어 유익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가 P C I(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로 유명한 만큼 많은 환자가 허혈성 심질환이었다.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우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교린대 순환기내과에서도 비슷한 실습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주대와 같이 매일 증례발표가 없어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아주대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야간 응급실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교린대학교는 질환을 넓게 임상적으로, 아주대학교는 질환을 기초적이고 깊게 공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C P C에 대해서는 아주대에서는 학생이 증례발표를 실시하고, 토막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지만, 교린대학교에서는 레지



▲ 교육전담 교수인 순환기내과 강수진 교수와 함께(가운데가 이정훈 학생)

던트 선생님이 증례를 발표하고,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하면서 설명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 한국에서는 영어 원본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일본서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아주대 의대는 입학정원이 적어서인지 공부하는 의식이 높고, 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교수, 레지던트 등의 선생님들도 교육열이 대단했다. 또 졸업한 선배들이 대부분 아주대학교병원에 남아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강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의료 수준도 높고 환자를 소중히 하는 의료기관이라서 이번 실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되어서 기뻐다.

일본 교린대학교 의과대학 6학년 이정훈 학생



## 잃어버린 귀(耳)를 찾아서

수원에 사는 연정희씨(여, 35세)는 지난 6월초 잊지 못할 큰 일을 겪었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6월 11일 토요일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 영범(9살)이 귀에 있어야 할 인공와우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공와우기를 단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고, 고도의 난시와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는 영범이는 인공와우기를 빼서 책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오는 일이 있어 『어디에 두었나』고 물었는데, 영범이의 얼굴 표정을 보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책가방, 주머니 등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 보았지만 허사였다.

그 길로 영범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학교로 달려가 교실, 복도, 운동장, 집으로 등하교 길을 몇 번이고 왕복하여 다녀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잃어버린 인공와우기의 구입비용은 일천만원. 영범이는 선천적으로 청각신경에 이상이 있어 잘 듣지 못했다. 그동안 보청기를 하고 다니다가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어렵게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받으니 일주일만에 생긴 일이다. 처음에는 어디엔가 떨어져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지만, 막상 살살이 뒤져도 나오지 않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인공와우기를 바라보며 아직 「재활치료」라는 멀고도 먼 과정이 남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듣고, 말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에 가족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다. 잘 듣지 못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력까지 좋지 않은 영범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아끼시지 않았던 수정초등학교 1학년 2반 박미영 선생님은 다음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 조회시간에서 인공와우기의 사진을 보여 주시며 함께 찾아 주기를 당부하셨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엘리베이터 안,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도와 주셨으며, 잔디밭을 함께 헤치며 혹여나 어디엔가 떨어져 있을 인공와우기 찾기를 자기 일처럼 도와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공와우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3일째 되던 날, 포기해야 하나 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태권도 도장에 갔던



▲ 사연의 주인공 연정희 · 오영범 모자, 안서지 청각치료사와 함께

큰 아들 (오)영웅이가 돌아오는 길에 인공와우기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다. 인공와우기를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갑던지. 지금도 그 순간의 기쁨을 잃을 수 없다. 큰 아이에게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더니, 태권도 도장 후배가 얼굴만 아는 아이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주웠으면 직접 돌려줄 것이지… 직접 돌려주기 부끄러워 그랬는지, 빨리 돌려주지 못해 미안해 그랬는지 그 이유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3일 만에 돌아온 인공와우기를 보며 그저 반갑고 기쁘기만 하다.

지금은 귀에 거는 안전장치를 하고 영범이도 조금은 익숙해 하는 눈치다. 그리고 6월20일 첫 번째 언어재활치료도 시작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어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영범이도 여느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환한 표정으로 수다를 떨거나 유행어를 흉내 내며 즐거워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런 영범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인공와우기를 찾아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인공와우 이식술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질병으로 와우(달팽이관)의 기능이 소실되어 양쪽 청력을 잃은 경우나 고도 난청의 경우, 수술로 한쪽 귀속 와우(달팽이관) 내로 전극(장치)을 삽입하여 청력을 회복시키는 재활수술로 이비인후과 수술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마지막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간호를 시작한지 9년째이다. 환자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두 가지가 생각난다. 첫째는 수원시와 주변의 인근 도시의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또 하나, 내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그런지 환자의 이름만으로는 누군지 잘 기억하지 못해도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줄줄이 떠오른다. 지나는 곳마다 내가 방문했던 환자가 떠오른다.

지금도 영통동의 어느 아파트를 지날 때면 그 환자분이 생각난다. 내가 그분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된 것은 2000년 12월 말경이다. 말기 위암으로 진단받고 위장관 폐쇄로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여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수액요법(TPN)을 하기 위해 가정간호를 시작하였다. 아직은 오십대 후반의 가장으로 젊은 부인과 남매를 두셨는데 두 자녀는 미혼이었다. 집안에 들어서면 소래포구의 소금창고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1999년 암진단을 받고나서 사업을 정리하고 취미활동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주 2회 방문하여 상태점검, 중심정맥관 관리와 수액요법을 시행하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주치의의 통화를 통하여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집에서 가정간호를 받으면서 환자의 상태는 유지되어서 잠깐씩 외출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간에 큰 딸의 결혼식도 치렀다. 어느 날은 자신의 묘자리를 보고 왔다고도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정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직은 젊고 촌각을 다투며 바쁘게 살고 있어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

그 환자분도 중간 중간에 많이 힘들어 했고 예정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희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서울의 유명병원과 한방병원을 가보기도 했고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가서는 봉침을 정기적으로 맞기도 하였다. 수면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를 항상 먹다 시피 했다.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정성으로 간호하던 부인과 신경전이 일어 간병인을 쓰게 되었다. 남편의 보호 속에 전업 주부로만 살다가 어느날 남편의 사형선고로 죽음을 지켜봐야 하고 이후에는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부인도 힘이 들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고통은 먹고자하나 먹지 못하는 문제였다. 음식물을 먹으면 밀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이분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은 모두 먹고 토해내는 일을 한동안 계



속했었다. 남 보기에는 역겨운 일이지만 내 집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1년 9월, 돌아가실 때까지 10여개월 간 입종 직전의 입원과 필요시 간헐적인 응급실 방문, 그리고 지속적인 가정간호를 통해서 집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퇴원 직후 가정방문을 다녀간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하듯 최선을 다해 가정간호를 해드렸지만 혼자 떠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다만 가정간호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그분의 집에서 마지막 삶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집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다 힘들게 돌아가시지 않게 한 것이 다행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그 동네를 지날 때면 험한 세파 속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부인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송 종 레 가정간호사 / 간호부



의료원 ▶▶▶

## 2006 수시 1학기 원서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 보여



지난 7월18일 마감한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원서접수 결과, 의학부는 4명 모집에 686명이 응시하여 171.5대 1, 간호학부는 3명 모집에 451명이 응시하여 150.3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단계 적성검사는 7월24일에, 2단계 강의테스트 및 면접은 7월31일에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8월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 위해 TF팀 구성 및 아주사회봉사단 발대 준비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책 결정에 앞서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조직, 명칭, 인력,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박명철 제2진료부원장이 중심으로 TFT를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 의료봉사 ▲ 지역사회봉사 ▲ 사회복지후원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프로젝트에 대한 봉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11주년 개원기념일에 아주사회봉사단(가칭) 발대식을 거행키로 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 교직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한국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에 참가키로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5일간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희망의 마을에 매일 30 명씩 총 150 명이 투입되어 러브하우스 16개동의 건축 마무리와 실내 장식, 마감에 대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시설관리팀은 지난 7월9일 토요일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바다의 별」에서 5번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시설관리팀 직원 5명이 우수로 지역 트랜치 설치, 건물내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난 전등 40개를 교체하고, 지하 공동작업장내 과부하에 따른 누전시설을 점검했다.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으며 당신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7월 교직원 월례회 개최**

의료원은 7월26일 화요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7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6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홍보팀 우효정 직원을 시상하고, 대우인천자 동차 한익수 전무를 초청하여 「우리는 우리를 넘어섰다」라는 주제의 교양특강을 가졌다.

**의과대학 ▶▶▶**



**아주대 의대, 2005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실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 6명은 여름방학이 시작하자 스토니브룩대학과 플로리다대학으로 나뉘어 임상실습을 떠났다. 이번 임상실습은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 의과대학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성적과 언어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한 학생들을 스토니브룩대학 의대, 플로리다대학 의대 등에 보내고 있다. 올해도 6월17일 의학부 김대회, 김치선, 이윤경, 송준하 학생이 스토니브룩대학으로 출국했고, 이어 6월24일에 의학부 한은진, 김수경, 안소연 학생이 플로리다대학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8월12일까지 해당 대학에 머무르면서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이어 지난 7월4일에는 스토니브룩 의대생 3명(Won, Gena, Lee, Jung Clare, Lee, Dara)이 의과대학에 도착하여 2명은 7월29일, 1명은 8월12일까지 응급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 중앙혈액내과에서 임상실습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의과대학생은 2003년도 4명, 2004년도 6명이며, 스토니브룩대학은 2003년도 2명, 2004년도 2명이다. 한편, 의과대학은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8월12일까지 해당 대학에 머무르면서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이어 지난 7월4일에는 스토니브룩 의대생 3명(Won, Gena, Lee, Jung Clare, Lee, Dara)이 의과대학에 도착하여 2명은 7월29일, 1명은 8월12일까지 응급의학과, 내분비대사내과, 중앙혈액내과에서 임상실습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의과대학생은 2003년도 4명, 2004년도 6명이며, 스토니브룩대학은 2003년도 2명, 2004년도 2명이다. 한편, 의과대학은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성원 교수, KBS 의료 자문의원으로 선정**

소화기내과학교실 조성원 교수가 KBS 의료 자문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조성원 교수는 KBS 뉴스가 다루는 각종 의학아이템에 대한 자문과 함께 오전에 방송되는 KBS 뉴스광장에 출연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의학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성원 교수는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인명 정보기관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가 발간하는 2005년판 「21세기 세계 유명과학자 2,000인」에 선정됐고, 「후즈 후(Who's Who)」 2006년판에 등재될 예정이다.

**기 증**

**학부모, 의과대학에 장우산 30개 기증**

최근 의과대학 학부모 협의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안종현 님(의학부 5학년 고병희 학생 모친)이 의과대학에 장우산 30개를 기증했다. 장우산은 우천시 의과대학과 병원을 오갈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 것으로, 안종현 님은 추후 부족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증할 의사를 밝혀왔다.



▲ 이영돈  
대학원 의학부장



▲ 김용순  
대학원 간호학부장

### 대학원 신입 의학부장 · 간호학부장 임명

아주대학교는 2005년 7월12일부로 의과대학 대학원 신입 의학부장에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를, 대학원 신입 간호학부장에 김용순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영돈 대학원 의학부장의 전공분야는 조직학, 신경발생학이며, 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 해부학교실을 거쳐 1989년 아주대 의대로 자리를 옮겨 해부학교실 교수 및 세포사멸조절 신약개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신임 김용순 대학원 간호학부장은 1971년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1993년 아주대학교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겨 아주대병원 의료지원부장, 아주대 의대 간호학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간호학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 연구기관 ▶▶▶



###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 Biochip 연구 선정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 함기백 교수가 최근 2005년도 보건복지부 Biochip 실용화 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함기백 교수는 연간 4억원씩 5년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위염 및 간염의 고위험도 및 치료 예측 Biochip 실용화 단계 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게 된다.



### 세포치료센터, 산자부 연구과제 협약 체결

세포치료센터(센터장 민병현 교수)가 최근 산업자원부로부터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책임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이며, 세포치료센터는 정부로부터 매년 2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 2005-2학기 보건대학원 신입생 모집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아래와 같이 2005-2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학과 : 보건학과

(보건정책과 관리,역학과 건강증진, 환경 · 산업관리)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7.1(금) ~ 8.19(금)

- 교 부 장 소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www.ajou.ac.kr/~ajousph)

- 전 형 일 : 2005. 8.23(화) 오후 2시

- 접 수 방 법 :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출신대학

졸업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문 의 : 보건대학원 사무실 ☎ 031-219-5022

병원 ▶▶▶



**아주대병원, 조직은행 및 유전자 은행 설립 허가 득**

아주대학교병원은 지난 6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직은행 설립 허가를 받았다. 조직은행의 장은 정형외과 원예연 교수이며, 조직취급품목은 뼈로, 기증,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주대학교병원은 2005년 7월7일부로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를 얻었다. 병원은 2005년 1월1일부로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5년 4월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유전자연구기관·유전자검사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이번에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를 얻음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인·허가사항이 종료됐다.



**병실 무상 인터넷 서비스 실시**

아주대학교병원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병실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2005년 7월4일부터 무상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인터넷 시설을 갖춘 병실은 1인실, 특실, VIP실, SVIP실 등 총 58실로, 네트워크 통신 장비 및 케이블을 설치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개별 PC 사용시 인터넷 이용이 가능케 됐다.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는 간호 스테이션에 인터넷 사용을 신청하고 병실 인터넷 서비스용 패키지(병실 인터넷 사용 안내서, 백신 프로그램 CD, 네트워크 케이블)를 수령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제3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후보자 추천 안내**



의료원은 제3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다.

2003년 수원시와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은 매년 보건 의료 분야에 많은 업적과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고 있다.

제3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시상식은 오는 9월7일 개최할 계획이다.

- 추천서 교부 | 아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ajoumc.or.kr)에서 다운로드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4층 총무팀
- 접수 기한 | 2005년 8월19일(금)
- 접수 방법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병원 총무팀  
제3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담당자 앞  
(우편번호 443-721)
- 팩 스 | 031- 219-6633
- 이메일 | agu1092@hanmail.net



**2005 하계 대학생 해외봉사단에 의료진 파견**

아주대학교병원은 2005년 하계 한국 대학생 해외봉사단으로 내과 권혁춘 레지던트(4년차)와 박선영 간호사를 파견했다. 파견된 의료진은 7월12일부터 8월2일까지 22일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해외봉사단의 일원으로 의료봉사 및 기타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1997년부터 매년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의 국가에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국제경험 확대와 자기개발 기회 제공,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은 매년 의료진을 파견하여 동참하고 있다.

**사회사업팀, 「사회재활교실」 실시**

사회사업팀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환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사회재활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에 관심 있는 환자와 가족으로 지난 7월14일 목요일 오후 4시30분 병원 지하 1층 수석홀에서 개최된 사회재활교실에서는 장애인등록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사회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6.24	경인일보	비뇨기과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1) - 오실금과 성생활
6.27	중앙일보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국민 85% 미세먼지 '위험'
6.27	중앙일보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서울 오염도 도쿄의 2배, 뉴욕의 3배 수준
6.27	경기일보	소아과 배기수 교수	천지춘추 - 혼돈사회의 교정 : '옛날 선생님' 이 해답
6.29	한국일보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	신진 의료복지 르포 노인케어 누가, 어떻게?(7)
6.29	경인일보	정신과 신윤미 교수	그냥두면 '사회성 장애' 온다
6.30	경기일보	정신과 신윤미 교수	산만한 우리 아이 어떻게 다룰까
7.1	경인일보	비뇨기과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2) - 변강석의 고민
7.6	경기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꽃 IBC 21세기 세계 유명과학자 2천인 선정
7.7	경인일보	소화기내과 조성원 교수	21세기 세계 유명과학자 2천인
7.8	경인일보	비뇨기과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3) - 혼자 즐기는 자위
7.14	국민일보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찾은 두통의 원인과 올바른 치료법
7.20	중부일보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급성 범발성 외이도염
7.22	경인일보	비뇨기과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4) - 여성의 체녀막 · 정조
7.22	경인일보 외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해외서 펼쳐는 첫 인술
7월호	건강다이제스트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내 몸의 약, 과일 건강법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6.30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통증으로 찾아오는 피부질환, 대상포진
6.30	경기 TV 뉴스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정미철 건강관리 이렇게



**2005년도 서브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아주대학교병원 교육수련부는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AJOU Subinternship Program 대상자 27명을 선발하여 지난 7월4일부터 오는 8월26일까지 2주씩 3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참가자들은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2차 수료생까지 배출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외래 중고 TV, 노인복지회관에 기증**

병원은 외래 TV를 신규 TV로 교체함에 따라 기존의 중고 TV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하는 TV는 총 9대로,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11층 동병동이 있잖아요!

## 호흡기내과 최영인 연구강사가 말하는 11층 동병동



「딩동댕! 코드 블루, 11층 동병동 호흡기내과!」

오늘 아침도 11동은 이렇게 일을 시작한다. 아마도 우리 병원에서 집중치료실을 제외하면 일반 병동 중에서는 가장 많은 방송을 타는 곳이다. 아침이면 한쪽에서는 회진을 따라 돌면

서 환자 스케줄이나 불편함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느라 속된 말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한다. 물론, 인계는 엄두도 못 내고 교대시간을 훌쩍 넘긴 밤 근무자가 1시간, 2시간 연장 근무하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면 다들 녹초가 되어 지친 얼굴로 모여 앉아 그제야 인계를 시작하고,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할 환자들, 흡인기를 자주 해주어야 하는 중환자들, 모든 환자들에 대한 걱정과 세심한 배려가 오고 간다. 그래도 퇴근하는 밤 근무자들의 표정엔 「아! 오늘 아침도 한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하는 뿌듯함이 몸의 피곤함보다 질게 피어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숨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보면 호흡기내과 주 병동인 우리 11층 동병동이야말로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호흡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한다.

**11** 층 동병동을 들어서면 시끄럽고 요란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병동임을 느낄 수 있다. 가쁜 호흡을 완화시키기 위한 분무기(Nebulizer)의 붕붕거리는 소리,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산소기(O2 meter)의 보글보글하는 소리, 가래를 뽑아내기 위해 흡인하는 흡인기(suction) 소리, 폐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하는 에머슨 펌프(Emerson pump) 소리,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돌아가는 웅 소리. 이런 소리들로 꽂 차있는 병동이다.

입원하신 분들은 평균 연령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아마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병동이라 생각된다. 응급처치를 마치고 좀 더 면밀한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환자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 곳, 중환자실에서 증상이 호전된 환자분이 매일 2~3명씩 옮겨오는 곳. 그렇게 하루에도 몇 명씩 중환자실과 병동을 오고 가는 환자분이 있는 곳이다. 그만큼 긴박하고 빠른 치료가 요구되는 병동이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위변경, 입으로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위관영양공급 그리고 구강간호, 폐렴을 예방하고 산소농도를 높이기 위한 흡인간호, 요도염을 예방하기 위한 회음부간호, 오랫동안 침상안정을 하신 분들의 재활운동 간호 등 직접간호가 많이 요구되는 병동이다.

이러한 병동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21명의 전문 교육을 받은 정예



부대로 이 급박한 병동을 내 집처럼 내 고향처럼 아득하고 포근한 치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내 할아버지처럼, 내 할머니처럼 그렇게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힘든 줄도 지칠줄도 모른다.

「내 병이 무슨 병일까」 노심초사 걱정하는 환자분들, 그 뒤에서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보호자들,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 면역치료를 받으면서 응급상황이 벌어질까 조심스레 치료받는 분들, 얼굴을 포함한 온 몸의 피부에 발진이 나고 피부가 벗겨져 고생하는 환자들, 이런 환자분들이 오늘도 11층 동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다르게 조용하고 외로운 병실이 한군데 있다. 갑상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핵의학 치료실이다. 이곳에 입원하는 분들은 옥소치료를 하므로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능을 막기 위해 병실이 특수한 구조물로 되어 있으며, 치료기간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간호사들도 병실 출입이 최소로 제한되어 있어 이곳에 입원한 환자분들에게 항상 자주 병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힘들게 고생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는 환자와 호전되어 건강한 모습을 찾고 희망을 가득 안고 퇴원하는 환자를 보며, 우리 11층 동병동 식구들은 항상 환자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하며 오늘 하루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 박지영 주임간호사가 말하는 11층 동병동



「폭풍전의 고요」, 11년을 일하며 느껴온 11층 동병동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평상시에도 호흡곤란이 있어 24시간 산소를 하고, 흡인장치(SUCTION)와 여러 기계를 사용해야 하며, 장기적 그리고 반복적 입원으로 환자들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언제 어떻게 환자의 상태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의료진은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층 동병동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 씀씀이가 넘치는 병동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심신이 지치고 힘이 들어 간호사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진정한 간호사의 자세를 제시해주고 이끌어 준 선·후배들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마 존재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

둘째는 지금까지 우리 병동을 다녀간 할아버지, 할머니 환자분들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매우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그 분들에게서 나는 인생에 대해 무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중 아주대학교병원 개원과 함께 신규 간호사로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만났던 황노미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 입원 당시 연로한 나이임에도 전신화상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말없이 이겨 내시고 퇴원하여, 나에게 희망이라는 힘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물론 그분은 내가 그분을 통해 많은 희망과 힘을 얻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새 그 때의 신규 간호사에서 벗어나 한 병동의 책임 간호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회의나 안일함에 젖어 나태해지는 자신을 느낄 때, 입사시 다짐했던 나이팅게일의 마음과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된다. 아마 오늘도 우리 병동은 이러 저러한 일들로 바쁜 하루가 되겠지만, 병동식구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기운을 내어 기다리는 환자분들께 사랑으로 간호해야겠다.





## ‘옥의 티’ 없는 완벽한 병원이 되기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직장생활이 벌써 23년째이고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지도 개원부터 함께 했으니, 아마도 10여년이 족히 된듯 싶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은 쉽사리 변한다 할지라도, 강산은 가장 변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도 세월이 가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등산로가 생기며 산의 형태가 변하고 나무들이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처럼 변화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렇듯 1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매년 아주대학교병원의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과 항상 밝은 미소로 편안하게 맞아주는 직원들과 센터의 모습을 보면 10년이란 세월의 변화가 비껴나간 것 같습니다.

안락하게 병원을 품고 있는 푸른 산의 모습 덕에 병원을 찾을 때마다 불안함보다는 안정됨과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병원에서 이런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대학교병원의 이런 환경은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가라앉게 해주고 입원 중에 있는 환자들이 쾌유하는데 적잖은 일조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병원환경 뿐 아니라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에서의 진료는 이곳을 찾는 환자나 건강검진을 받는 고객에게 병원에 대한 믿음과 충분한 만족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찾을 때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각종 성인병과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한 요즈음 유행하는 단어로 웰빙(well-being)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로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물건이나 훌륭한 때도 상세히 들여다 보거나 따지고 보면 사소한 흠 혹은 오점이 있다는 말로 「옥에 티」라고 하듯이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옥에 티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IMF 사태 이후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연봉제 혹은 성과보상제 등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하고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노사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 또는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텐트를 치고 확성기를 틀며 눈에 확연하게 띄는 복장 모습들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환자들과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못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발전되고 성숙되는 모습들이 만들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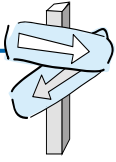
하지만 그 해결의 과정이 병원의 원래 목적과 배치된다면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숙된 보다 한 차원 높은 노사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욕심 같아서는 혹 다른 병원에서는 전자와 같은 일이 있을지언정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인생에는 없는 것 중 하나가 지름길입니다. 지도에는 지름길이 반드시 있습니다만, 노사문제는 지름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 관계되는 분은 경영자 입장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병원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는 포용과 공감대를 밑바탕에 두고 서로가 조금씩 이해와 양보를 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화합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노사 문제는 천천히 하나씩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정말로 경쟁시대입니다. 병원도 제조업체처럼 제품을 만들지는 않지만, 결국은 아주대학교병원을 한번쯤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고객이 반드시 평가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옥에 티」도 없는 완벽하고 언제나 발전하는 아주대학교병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건강증진센터의 의사, 간호사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혜숙 부장님, 김호심 부장님, 이연정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천대우자동차 조중섭 차장님





## 환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에너지와 사랑을 나눠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간호사,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까다로운 한 늙은이, 현명하지도 못하고 시선은 먼 곳에만 박은 채 번덕스런 성격을 가진 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음식이나 질질 흘리고 『다시 한번 해봐요』하고 당신이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당신이 요구하는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끝없이 스타킹과 신발을 잊어버리는 그런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인가요? 당신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인가요?

그렇다면 간호사, 눈을 뜨고 날 바라봐요. 내가 이곳에 꿈꾸고 앉아 있을 때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당신에게 말해줄 테니,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당신의 의지에 따라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내 안에는 아직 열살 먹은 어린이가 숨쉬고 있단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내 안에는 또 머지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꿈꾸는 두발에 날개를 매단 열일곱 살의 소녀가 있단다. 그리고 심장이 약동하는 스물한살의 신부도 그곳에 있지요. 자신이 지키기로 약속한 맹세들을 기억하는, 스물여섯살에 나는 내 자신의 자식들을 가졌고 그 아이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단다. 서른살 때, 내 아이들은 빨리 자라고 오랫동안 지속될 그런 끈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었지요. 마흔살에 내 젊은 아들들은 성장해서 떠났고 하지만 난 남편이 곁에 있기에 울지 않았단다. 쉰살이 됐을 때 또 다시 갓난아이들이 내 무릎 위에서 놀고 있단다. 또 다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곧이어 어두운 날들이 내게 닥쳤단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요. 나 이제 한 사람의 늙은이, 자연은 그토록 잔인하지요. 나를 늙게 하고 바보처럼 만들어 버린 건 자연의 짓궂은 농담이지요. 육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갔단다. 하지만 이 늙은 몸뚱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 소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내 약해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있단다. 난 기쁨들을 기억하고, 고통들을 기억하지요. 그 기억들 속에서 난 또 다시 사랑하고 있고 또 다시 삶을 살고 있단다.

난 그 세월들을 생각하지요. 너무도 짧고 너무도 빨리 지나간 날들. 그리고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그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지요. 그러니 간호사, 당신의 눈을 열고 나를 봐요.

까다로운 늙은 여자라고 여길 게 아니라 좀더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봐요!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어떠한 간호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읽어주셨던 한 글이 생각났다. 이 글은 스코틀랜드의 둔디 근처에 있는 아슈루디 병원의 노인 병동에서 숨을 거둔 한 할머니가 쓴 것이다. 할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이 시를 발견했다고 한다.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아닌, 간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은 간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간호사의 이미지에 관한 2000년도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사회통념상 간호사에게 푸근한 모성의 이미지를 기대하나 실제로는 쌀쌀맞고 감정이 없는 얼음 여성의 이미지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병을 안고 병원을 찾아왔을 때 신체적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분 또는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봉사한다는 생각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가진 에너지와 사랑을 나누어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마음가짐을 갖으면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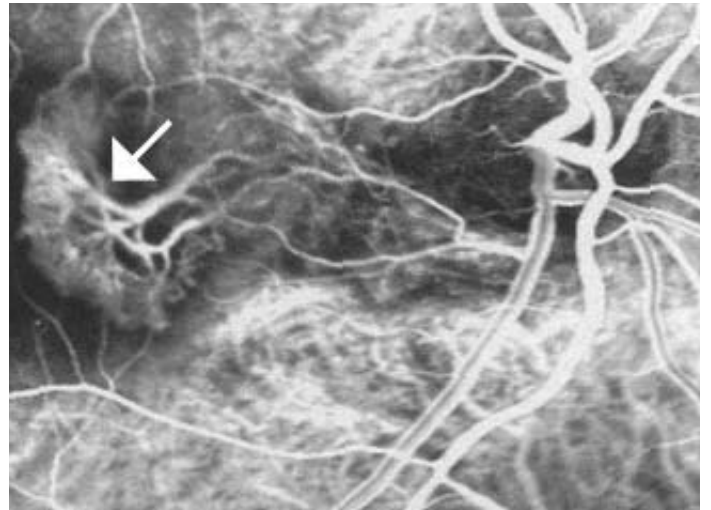
불친절한 간호사, 부탁하기 어려운 간호사, 짜증부리는 간호사, 말 걸기 힘든 간호사, 무관심한 간호사. 내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란다. 친절하고,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간호사, 의지할 수 있는 간호사,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를 꿈꿔본다.



## 현존 최고의 망막촬영기, HRA2



▲ HRA2



▲ 화살표시를 보면 맥락막에 형성된 비정상적인 혈관이 관찰된다.

**새**로 도입된 안과의 HRA2는 망막 및 맥락막 혈관질환을 진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기존에 사용한 안저촬영 카메라는 후레쉬를 사용하여 검사시 환자가 눈부심이 심한 불편감이 있고, 촬영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주일 후 다시 내원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HRA2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눈부심이 없는 장점과 촬영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레이저 방식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초당 20매까지 초고속으로 촬영이 가능하여 기존 장비에 비해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영상까지 가능하여 현존 최고의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광안저 촬영과 맥락막 촬영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각각 다른 날에 촬영을 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감이 있으나 HRA2는 한번에 2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도 있다.

최근 고연령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질환은 맥락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성됨으로 인해 망막이 파괴되어 급격한 시력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새로 도입되는 HRA2는 망막 및 맥락막 혈관을 보다 정확하게 촬영이 가능하여 앞으로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찬식 교수 / 안과학교실



# 「환자를 부모처럼, 직원은 가족같이, 사회를 건강하게」 효자병원

## 청정자연 속 노인전문병원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용인시의 구성읍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인 효자병원은 1997년 11월 개원한 이후 8년여 동안 쉽 없는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노인환자들의 주요 질환 치료를 위해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등 5개 전문 진료과와 다양한 노인질환의 전문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치매클리닉, 파킨슨병클리닉, 뇌중풍클리닉, 노인병클리닉, 노인성 정신질환클리닉 등 특수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병 도우미를 포함한 약 350 명의 인력들이 400여 명의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증상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휴양림 같은 아름다운 공간

효자병원은 입원환자를 위한 여유롭고 아름다운 공간을 자랑한다. 고풍스런 인테리어, 계곡을 이용한 인공폭포, 휴양림과 같은 산책로와 정자, 기억회상을 자극하는 옛 물건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들도 쉬어 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는 병원을 질병치료만을 위한 경직된 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노인환자들이 병원 생활에 있어 지루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진단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따라 5개의 특수클리닉 간 연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각 과별 진단을 토대로 통합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보바스 치료를 포함한 특성화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통하여 신체적 및 인지 기능을 호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회상치료, 인지재활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치료견 활동 등의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손상된 대인관계 기술과 생활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등 환자의 완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2003년 2월부터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시 의뢰의 신속성을 기하고, 특수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에 있어서도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조만간 구축 예정인 아주대학교병원과 효자병원 간에 온라인 진료의뢰회신시스템을 통하여 향후에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효자병원은 인근 보건지소들과 협조하여 치매환자 무료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고 건강 교육 및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연계를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노인의학이 국내에 태동한지 이미 십수년이 지났지만 전문 간병도우미, 전문 간호사 및 전문의사 등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 및 연구에도 힘쓰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예방 및 교육사업 등으로 더욱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효자병원은 2005년을 새로운 가치 창조의 해로 정하고 질적 향상에 보다 매진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노인전문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할 것이다.

김 영 배 팀장 / Q팀

# 아주대학교의료원

## 교육 · 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으로 구성된 우리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994년 개원한 이래 1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내외 연구실적, 학생들의 입학성적, 의사 및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우수한 병원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국내 최상위권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발전의 노력으로 지역 사회가 사랑하는 의료원,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의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료원 가족 여러분들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문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년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오늘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개원 20주년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모습은 「수 개 진료분야의 최고수준 도달,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립, 국내 3위 이내 의과대학으로의 진입」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의료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꿈은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 성원이 밑거름이 되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과 성원은 세계적 의학수준의 발전과 건강사회 구현이라는 의료원의 꿈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 교육 · 연구동 건축 개요

- 건축 장소 : 아주대의료원 내 건물면적 약 5,000평 규모  
(지상 10층, 지하 2층)
- 건물 용도 : 첨단 Biotechnology Center 및 교육동  
(임상연구실험, 벤처, 의료수익, 기반시설, 강의동 등)
- 건축 시기 : 2007년~2012년 예상

### 후원자에 대한 예우

후원 금액	예 우
1백만원 이상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5백만원 이상	차량출입증(1년)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1천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3년, 연5백만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1매 1회) 차량출입증(3년)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5천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10년, 연5백만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2매 1회) 차량출입증(10년)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1억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평생, 연5백만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2매 평생) 차량출입증(평생) 건물 또는 실명명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 교육·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건수	납입총액	비 고
월 간	5건	206,500천원	
누 계	394명	2,283,809천원	

### 월간 내역

성 명	약정·납입액	비 고
박 경 주	3,000,000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교원
익명의 교직원	18,000,000	
무기명 기탁자 3명	186,000,000	본교 경유 후원금 기탁
교직원 분납분	2,500,87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5.6.22 ~ 7. 25

## 후원 방법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형태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제일은행 692-20-154295
  - 제일은행 692-20-166907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예금주 : 아주대의료원)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 후 사무국에 전화 통보
- 지로납입
  - 지로번호 7303519
- 안내전화
  - 발전후원회 사무국 ☎ 031-219-4000



게시판

경인일보 '최종보 교수의 성 다이어리' 연재



▶2005년 6월 24일      ▶2005년 7월 1일      ▶2005년 7월 8일

비뇨기과학교실 최종보 교수가 지난 6월24일부터 경인일보에 [최종보 교수의 성 다이어리]를 연재하고 있다.

[최종보 교수의 성 다이어리]는 일반인들이 많이 고민하는 성 문제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재밌고 유익하게 전달하는 코너로, 매주 금요일 10~15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글사랑 서점) → 동양부페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TG삼보컴퓨터(아주대 삼거리) → 법원사거리 앞(신라갈비) → 병원 현관

평일 오전 8:30~ 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토요일 · 공휴일은 운행 안함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부수과명	의사명	진료일/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관절염/염/센터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동호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무릎, 통풍	
	민병현	5543		수	관절염 초기치료 · 저장도 초음파	★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해외연수중		수부 및 상지외과	★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명/부수과명	의사명	진료일/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 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클리닉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한증, 수족냉증, 대장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화, 목, 금	수	경부 · 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임빈진	4332	월, 화, 목, 금		경부 · 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알성통증 기타	
유방/클리닉	김명욱	4743		월	유방 질환	
	정용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 질환	
	고진철	4743		수	유방 질환	★
					*은 암모를 시술만 시행	
학술 및 상담/클리닉	신윤미	5814		화	소아 · 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일/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원제환 5863	월, 수, 금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한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클리닉	벌독(곤충독) 알레르기 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호 5905	화	목, 금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이철주 5752	금	화, 금
		소동문 5752	월, 수	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목	화, 목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김미란 5643	화, 목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양홍석 5671		화, 금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0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야뇨증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화	
치과	인공치아식클리닉 5869	이정근 5869	화, 목, 금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고석민 5869			
		송승일 5869	수		

#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5년 8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부서/내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9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3	금	화, 목	간질환		
	최준혁			화	소화기질환		
	차충근			월	소화기질환		
	명보현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제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한	5973	월, 목	화	관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고승	5974	해외연수중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전극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윤명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4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병주	5973	수	월, 금	부정맥, 심장혈관질환		
	강수진	5973	금	월, 목	관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안성균	5974	화	금	심장혈관질환		
	최정현	5973	수	목	고혈압, 심장질환		
	임홍석	5974	월, 목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암, 간염, 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화, 금	월, 목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박주현	4731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화, 금	호흡기질환		
	최영인			금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운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송경은		금	화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정신혜		수	목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수,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수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희준			화, 목	신장질환		
중환자내과	김호철	5992	수, 목		혈액암, 혈액응고질환		
	임호영	5991	월, 화, 목		소화기암, 악성유종치료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암, 폐암, 유방암치료		
	박준성	5992	해외연수중		조혈모세포이식술		
	장준호	5990	월, 화, 금	화	악성혈액질환, 빈혈		
	강석운	5992	월, 수, 목, 금		조양학, 혈액학		
	일반진료			화	각종 암 및 혈액질환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5905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목	화, 금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및 루푸스 질환	
		서창희	5818	화	월, 수, 목,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통풍	
예영민		5905	월, 화	월, 화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	
일반진료		5905		목	알레르기·류마티스 질환	★	
내과일반	5970	월~금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부서/내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수	신경계질환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화,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수,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수,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해외연수중		
	박준은	5617	화, 목	수,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유재은			월, 목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서호정		금	금	저신장, 성조숙증		
신경과	허균	5659	월, 목	화	간질, 지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지매		
	이필후	5657	화, 수	월, 목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서정임	5657		화, 수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일반진료	5657	수, 금	목, 금	뇌혈관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안어장애	★	
피부과	이은소	5912	화, 목	수, 목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궤양·레이저치료)		
	김유찬	5914	월, 화, 목	화, 목	피부종양, 화상박피술(금·레이저치)		
	강희영	5914	수, 금	월, 목	백반증, 피부색소질환(수·레이저치료)		
	이상원	5912		월, 목	일반피부질환(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에약에 의함		
외과	김명욱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우관	5756	화	화, 수	위장 및 복부질환		
	소의영	5756	수, 금		갑상선·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종양, 탈장, 폐반기능장애)		
	양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통증 100%-500 Onsite Service)		
	김욱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한사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외수술		
	정용식	4743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일반진료	이국중	5753	목		외상외과		
	김봉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이병도	화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급성복통		
	진성호			목	위십이지장질환, 급성복통		
	최태용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고진철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5717 5752	이철주	5749	금	화, 금	성인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말초혈관질환		
	최호	5750	화	화, 금	폐암, 종격동질환, 다한증		
	이상수	5750	목	월, 목	식도암, 흉벽기형, 일반흉부외과		
	홍준화	5750	수	수	심장혈관외과		
정형외과 5545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관절염외과, 관절염 초기 치료, 저장도수용과	★	
	진장훈	5542	화*, 목,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해외연수중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5518	월, 금	금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5542		월, 수,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 늘리는 수술), 외상		
	김광균	수			인공관절		
	김경호			금	척추외과		
	임한기	목			수부외과		
	일반진료	화					
신경외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월,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목	화, 목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희	5663	수	수, 금	뇌종양, 외상		
	임용철	5663	월		뇌종양, 외상		
	원근수	5663		월	척추질환, 외상		
	심숙영	5663		화	뇌종양, 외상		
	상해외과 5614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3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5612	토	월,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일반진료		월, 금	월, 금				
산부인과 5597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화, 금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금	화, 수,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	
	이정필	5595	월, 수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란	5643	화, 목	화, 목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미혼여성	★	
	임윤경	5593	 	월,  목	산과		
	일반진료	월, 금	월, 수, 목, 금				
	안과 5673	유호민	5669	월, 수, 금	 (예약),  (예약)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문찬식		5672	화, 수(레이저 치료)	수	망막, 백내장, 유리체		
일반진료	5671	월, 금	월, 금				
이비인후과 5747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이지럼증		
	문성균	5742	해외연수중		난청(유전성 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화(신경클리닉), 목(이비인후)	금	난청, 인공와우, 이지럼증, 보청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수(응급클리닉)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화,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신유리			월, 화, 목	난청, 중이염		
	조민정	수	목, 금	중이염, 비염, 부비동염			
	송정환	수, 월	월, 수	비염, 부비동염			
일반진료	월, 금	월, 금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5585	김영수	5586	수	월,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인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안병철	월, 목			비뇨기종양(암), 요로결석	
	허용선	수, 금				
	일반진료			화, 수, 목, 금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사 재활	
	임신영	6440	화(사경클리닉)	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5802	윤승현	월, 금	화, 수,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일반진료	화		목			
지방 외과 5823	김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월, 수, 금		혈액관중재적 치료, 혈관신경, 하지혈관질환	
	일반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 종양학과 5884	전미선	5884	월, 금	월, 금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 금	월, 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해외연수중		종양(뇌종양, 육종, 소아암)	
핵심 영상 의학과 5839	윤석남	5947	월, 금	월, 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 금	월, 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산 업 외과 5644	이경중	5645		화, 금	직업성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
	박재범	5295		월, 목	직업성 질환	★
	일반진료	5644		월, 금	직업성 질환	
가 정 의학과 5959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셋별	5957	화, 목, 금	월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7	월, 수, 목	화	비만, 골다공증	
	주남석	월		수, 금	건강증진, 비만	
	공미희	화		월, 목	갱년기 관리, 피로, 건강증진	
일반진료	4808	화, 금	월, 금			
치 과 5869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악안면기형(주걱턱), 치과임플란트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치과임플란트, 심미보철	
	유성근	5869	수*, 목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실측교정, 악안면기형	
	송승일	5869	화, 수*, 목*, 금	화*, 목*	턱관절 장애, 치과임플란트	
	신해진	5869	월*, 화*, 목, 금	월*, 목, 금	근관치료, 치아미백	
일반진료	5869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화후후, 금요일만 초진가능 *는 별도 예약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전	오후	저녁	야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6011	조준필	6005	월, 수	화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
	정윤석	6005	목, 금	월, 금	화	화	소생의학, 임상독성학, 응급질환	★
	이국중	6005	목*	수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
	민영기	6005	화	월, 화, 수	목	목	중환자의학, 소생의학	★
	김기운	6005	목, 금	목, 금	월	월	임상독성학, 응급질환, 소생의학	★
배영신	6005	월, 화, 수	목	수, 금	금	응급질환, 소생의학	★	

▲ 응급의학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순번대로 진료합니다.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의사가 비필 수 있으나  
세부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는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 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